

# 韓末 · 日帝强占 初期 群山 魚物市場의 變動과 客主<sup>†</sup>

金 泰 雄\*

## A Study on the Change of Fishes Market and Inland Market Brokers on Gunsan, 1899-1919

Kim, Tae-Woong

### < 목 차 >

I. 序 言	IV. 魚物市場의  재편과 客主의  쇠퇴
II. 群山 開港과 客主의 商會社 設立 運動	V. 結 語
III. 日本人 魚市場의  침탈과 客主의  저항	참고문헌
	Abstract

### I. 序 言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교환경제의 발달로 어업이 발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조성되었다. 특히 어업이 상품 판매 비중이 자가 소비 비중보다 높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한편 인구가 증가하고, 상품유통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어획물의 소비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어획물을 취급하는 客主들도 성장하였다.

이들 客주는 어물이 다른 상품에 비해 지역적, 계절적 변동의 극심으로 말미암아 가격이 불안정하고 부패되고 손상되기 쉬운 점을 활용하여 가격 결정을 비롯한 제반 권리가 강하였다. 또한 이들 客주는 어물의 생산과 유통에 깊이 관여하면서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물론 생산자나 소상공인에게 세금을 받거나 구문을 받아내어 이들의 성장을 막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거나 판매처를 확보하여 수

접수 : 2005년 3월 2일      게재확정 : 2005년 4월 5일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BS1516).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조교수(kimtw@snu.ac.kr)

산업이 근대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개항 이후 일본인 수산업자들이 조선 국내의 수산물 생산 부문에 적극 침투 하면서 어획물 유통 부문도 이러한 소용돌이를 맞았다. 이는 국내 어물 시장의 변동을 야기하였고 조선인 객주들의 위축과 재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sup>1)</sup> 특히 일본인의 상업 행위가 활발한 개항장 도시가 그러하였다.

하지만 일본 상인들이 어획물 유통 부문을 장악하는 과정은 생산 부문과 달리 복잡하였다. 우선 어획물 유통부문이 지니는 특질이 크게 작용하였다.<sup>2)</sup> 또한 조선인 객주가 일본 상인들의 어획물 시장 침투에 저항하며 사회경제운동을 전개한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 밖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좋아하는 어획물의 종류와 보관 방식이 달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sup>3)</sup>.

기존의 연구에서는 생산 부문에 중점을 둔 나머지 유통 부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주로 일본 어민의 침투 과정과 그 영향을 구명하거나(朴九秉, 1966 ; 韓祐勗, 1971) 일제의 어업 침투 과정과 함께 한국 어업의 전개 과정을 해명하였다(이영학, 1995 ; 金秀姬, 1997). 더 나아가 이런 연구 성과가 유통 부문에 그대로 투사됨으로써 수산업에서 유통부문이 지니는 특질이 간과되었을뿐더러 이 시기 수산업의 변동이 단선적으로 처리되었다. 한편, 일제가 남긴 문헌이나 수협 역사에 관한 대부분의 편찬서들은 객주의 퇴행적인 기생성에 주안을 둔 나머지 객주의 또 다른 가능성 즉 일제의 침탈에 맞서 근대 자본가로 변모하려는 시도를 시야에 넣지 못하였다<sup>4)</sup>.

본고는 어획물 유통 부문에서 일본 판매업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일제의 침탈에 맞서 조선인 객주가 대응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899년에 개항된 群山の 경우를 사례로 삼아 魚物市場의變動과 객주의 동향을 해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군산은 서해 어업의 주요 근거지로서 농수산물의 집산지인 江景浦口와 가까울뿐더러 개항 이후 일본인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업을 소기의 목표대로 진행한다면 이 시기 군산 어물시장의 변동을 객주의 성쇠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1) 본고의 '魚物市場'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주로 경영하였던 특정 유통 기구의 하나였던 '魚市場'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는 광의의 어시장에 가깝다.
- 2) 어획물은 일반적으로 부패되고 손상되기 쉬우므로 신선도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관과 수송, 판매를 포함한 유통 기간이 매우 짧아야 하고 유통망이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객주의 영향력은 매우 컸던 반면에 국내 유통망에 취약하였던 외국 상인들은 이 부문에 적극 침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을 소요해야 했다.
- 3) 조선인들은 말리거나 소금에 절인 조기, 명태 등을 선호했던 데 반해 일본인들은 鮮魚 형태의 도미, 삼치 등을 선호하였다.
- 4) 일제가 남긴 문헌들 곳곳에서 조선인 객주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수협 역사에 관한 대부분의 편찬서들도 각 시대마다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제의 객주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이어받아 객주의 구실을 부정 일변도로 서술하였다.

## II. 群山 開港과 客主의 商會社 設立運動

조선 후기에 농업생산력과 교환경제의 발달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를 비롯한 비농촌이 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부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던 어획물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또한 제사의 성행과 술 소비의 증가는 어획물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가공 기술의 발달과 유통경로의 확대는 수산물 유통이 이전의 국지적 규모에서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민의 생활에 없을 수 없는 것이 魚鹽”이었고 부잣집의 경우에는 하루에 반찬으로 사용하는 어염의 비용이 주식인 쌀값의 10배나 되었으며 가난한 자라도 쌀값과 맞먹는다고 하였다. 그 만큼 수산물은 상품화율이 높은 상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高東煥, 1994 ; 이영학, 2001).

서해 어장에서 주로 잡히는 조기는 이런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중 서해 어장의 대표인 蝸島를 비롯한 七山 漁場은 대단하였다. 갑오개혁기에 智島郡 郡守를 지냈던 吳弘默은 “법성포 서쪽 칠산바다에는 배를 델 곳이 없고……고기를 사고 팔며 오가는 거래액이 가히 수십만 냥에 이른다. 가장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조기로 팔도에서 모두 먹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sup>5)</sup> 또한 군산에 근접한 古群山島의 앞바다에는 “魚梁이 있는데 매년 봄과 여름의 고기 잡는 계절이 되면 각 고을의 상선이 구름이나 안개처럼 모여들어서 해상에서 판매한다. 주민은 이로써 부유해져 집과 의복을 다투어 다듬는데 그 호사함이 육지 백성보다 심하다.”고 할 정도였다<sup>6)</sup>. 그리고 이러한 어장은 군산에 연접한 竹島 어장을 거쳐 忠淸道 鰲川郡, 鹿島, 京畿道 延坪島 漁場까지 이르렀다.<sup>7)</sup> 그리하여 이렇게 잡힌 조기의 일부는 조선 3대 장시의 하나인 江景場에 주로 집하된 뒤 전국 각지로 배급 판매되었다. 군산의 경우, 京浦市를 비롯한 여러 장시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 이제 어업은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생산으로 변모하였으며 어획물이 상품으로서 본격적으로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 군산 주변의 어획량과 소비량은 통계수치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만 1910년 경 어획량을 통해 소비량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일본 어선의 경우, 35만~40만엔이었으며, 조선 어선의 경우는 그 이상이었다. 여기에는 조기를 비롯하여 큰칼치의 경우도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군산, 강경, 나포, 논산, 공주 등에 집산한 어물금액이 20만엔 이상이었다.<sup>8)</sup> 또한 군산, 옥구의 장시에 집산되는 수산물 금액은 월 3,700~3,800엔이었다.<sup>9)</sup> 1904년 현재 쌀 1석이 10엔이었음을 감안하면 집산액

5) 吳弘默, 智島郡叢瑣錄.

6) 李重煥, 擇里志.

7) 朝鮮總督府(1910), 韓國水産誌 3, pp.548-590.

8) 韓國水産誌 3, p.548-549.

9) 韓國水産誌 3, p.501.

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0)</sup>

그런데 이들 수산물 유통에 크게 관여한 기구는 객주였다. 이들 객주는 주로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수산물도 취급하였다.<sup>11)</sup> 특히 포구 지역에서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일본인들의 눈에도 들어왔다.

수산물 問屋業者는 조선에서는 옛날부터 존재하여 대다수는 수산물 외 일반화물을 취급하고 화물의 集散에 편한 장소에는 그 개설을 보며 이를 客主業이라고 말하며 그 중 큰 것을 旅關이라고 칭하며 객주(또는 여각)는 荷主의 위탁을 받아 중매인 또는 소매인에게 어류를 판매함과 함께 일면 어업자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또 賣主 또는 荷主를 숙박시켜 그 중개 거래를 편히 하거나 하주를 위해 화물보관을 맡는 기관이 되면 지방에 따라서는 고래 일종의 株(주인권)를 이름으로써 새로이 해당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매매 양도에 따라 그 주를 획득함을 관례로 하며 객주는 각 일정의 세력범위를 가지고 서로 존중하여 침범하지 않으며 객주는 受託 魚類에 하주가 지정하는 것에는 그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지의 上場을 표준으로 하여 중매인 또는 소매인과 절충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sup>12)</sup>

객주는 위탁 판매, 화물 보관, 숙박 시설 제공과 함께 어물 가격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sup>13)</sup> 특히 어획물은 보관, 운반 기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어획물 취급 객주는 그 권한이 여타 객주보다 강하여 가격 조정에 중요한 권리를 행사했을 것이다. 또한 어업자로부터 구문으로 거래 가격의 1할 또는 8푼을 받았다.<sup>14)</sup> 이러한 수수율은 일반 객주가 받는 2~3%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또 물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기 위한 창고를 가지기도 하였다.<sup>15)</sup> 그리하여 어획물 취급 객주는 막대한 자본으로 생산과 유통 모두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이들 객주는 생산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거나 판매처를 확보하여 전통수산업이 근대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1899년 군산 개항은 군산의 어획물 객주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우선 일본 어민이 개항 이전부터 본국 어장의 포화로 조선 남해뿐더러 서해에도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천 앞 바다에서 활동하였던 加來榮太郎이 군산 앞바다의 於靑島에 들어오면서 어민들의 이주가 본격화하였다.<sup>16)</sup> 곧이어 1899년에는 福岡의 漁業獎勵協會가 군산의 西濱과 忠南의 龍堂에 이주어가 43호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1900년에는 遠山

10) 하원호(1997), p.243.

11) 韓國水産誌 1, p.457.

12) 朝鮮水産會(1926), 朝鮮水産大要, pp.21 - 22.

13) 朝鮮總督府(1912), 水産主任打合會要錄, pp.19 - 20.

14) 韓國水産誌 1, p.365.

15) 朝鮮風俗集(1909), '朝鮮の旅館'.

16) 農商務省 水産局(1905), 韓國水産業調査, pp.82 - 83.

龜三郎이 福岡 漁民 30호를 거느리고 西濱에 또 이주하였다.<sup>17)</sup>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 어민의 침투는 생산 부문에만 국한되었지만, 개항으로 말미암아 일본인이 거주하고 수요를 창출하면서 기존의 어물 시장을 침식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군산의 경우, 일본인의 인구 증가율이 높아 수산물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표 1〉은 1910년 이전 군산부 일본인의 인구 현황이다.

〈표 1〉 1910년 이전 군산부 일본인의 호구 현황

민족별 / 연도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호수	조선인	150	253	320	395	438	623	739	825	831	469	1364	896
	일본인	20	131	171	187	302	361	421	569	796	836	813	904
	외국인		8	19	21	25	22	35	40	42	39	32	25
	계	170	392	510	603	765	1009	1195	1434	1669	1344	2209	1825
인구	조선인	511	780	921	1300	1811	2113	3451	2835	2903	1494	5466	3830
	일본인	77	422	472	569	1225	1262	1620	2050	2956	3060	3220	3448
	외국인		24	56	63	78	73	85	96	128	131	96	95
	계	588	1226	1449	1932	3114	3448	4156	4981	5987	4685	8782	7373

출전 : 群山府廳(1935), 群山府史, pp.18 - 20

이 중 1902년·1903년에 일본인의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다. 이런 추세 속에서 1900년경 大阪商會社 대리점을 연 大澤藤十郎이 개인사업으로서 魚物問屋業을 개시하여 주로 어류를 조선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어업자로부터는 매입하는 등 수산물 매매에 나서기 시작하였다.<sup>18)</sup> 그러나 大澤의 어물 문육업은 초반에 시세를 알지 못하여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1905년 1년 매상고의 경우, 14,000엔에 지나지 않았다.<sup>19)</sup> 그것은 수산물의 대부분을 조선인 객주들이 거래하고 있을뿐더러<sup>20)</sup> 조기를 제외하고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물들만 취급하고 있어 군산 거류 일본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그쳤다.<sup>21)</sup>

한편 대한제국 정부는 군산 개항을 앞두고 목포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침투를 최대한 막기 위해 일본인 專管租界地가 아니라 共同租界地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조계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부분적인 방어에 지나지 않았다(김종수, 1999).

군산 객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비록 초기에 일본 상인들이 국내 사정을 잘 알지 못했고 내지 통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항장 밖 객주들은 별로 타격을 입지

17)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1984), 군산수협50년사, pp.32 - 33.

18) 韓國水産誌 1, p.450.

19) 三輪規, 松網琢磨(1907), p.217.

20) 通商彙纂 188호(1900. 11.21), '韓國忠清道錦江兩岸情況'.

21) 三輪規, 松網琢磨(1907), p.217.

않았지만 군산항 객주들은 일본상인의 침투가 야기할 제반 사항을 예견하였다. 이에 군산항 객주들은 商會社를 설립하려 하였다. 그것은 외상의 침탈 및 지방관의 간섭과 富商의 점거에 대항하여 상권을 지키려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황실과 군산항 객주는 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商會社 설립 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우선 황실이 1880년대 이래로 재정 수입과 객주의 보호를 위해 새로운 상회사를 장려하였다. 그것은 개항장 객주의 都賈權을 보장하는 댓가로 내장원에 百一稅를 상납하는 방식이었다. 조선 후기 이래의 각종 상업세가 이제는 내장원으로 귀속되어 황실 재정의 원천이 되었고, 객주들도 황실의 보호에 힘입어 지방관과 토호로부터 수탈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sup>22)</sup> 특히 외국 상인의 침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산의 경우, 1899년과 1900년에 각각 설립된 順興社와 永興社가 그러하였다. 이는 재래의 都旅關例를 발전시킨 회사로 동업 객주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과 연락을 행하며 수세 상납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되었던 것이다.<sup>23)</sup> 또한 1900년 7월 농상공부로부터 어염의 전매권을 부여받은 魚鹽會社가 옥구에 설립되었다.<sup>24)</sup>

물론 이러한 商會社 설립에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여기서 배제된 일부 객주들과 일본이 반발하면서 객주 내부에서 갈등도 만만치 않았으며 외교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군산의 경우, 港內各商이 통상장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영흥회사의 백일세를 조속히 폐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심지어 백일세로 인해 상업이 遑遑하다고 하며 영흥사를 혁파하려 했다.<sup>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여 이러한 정책을 밀고 나아갔다. 즉 이런 조치를 통해 상회사를 내외 상인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신에 영업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하였던 것이다. 한편 객주회사는 내장원에 귀속되는 대신에 독점 영업권을 획득함으로써 안정적인 상행위를 영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의 都賈權은 이전 시기와는 달리 각 개항장의 객주 상법회사 장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었다. 이 때 마련된 「永興社章程」은 다음과 같다.

年稅를 600元으로 磨鍊야 御供으로 上納되 春秋兩等に 分納하고 完東兩浦를 該社에 附屬야 諸般事務를 一視察하며 諸客主를 管領야 保護之方을 永久히 되 若有 背議違條者면 逐出하고 百穀與雜種을 等分收稅하느니 穀物 每斗 3分, 牛皮 每秤 2兩, 加沙釐 每秤 1兩 5錢, 五倍子 2兩, 海蔘 2兩, 鰯魚 7錢, 別銀 每兩 元 每塊 2兩, 北魚 每兩頭 5分, 紬屬 每疋 2錢 5分, 鹽 每石 2錢, 土產雜種物 每百斗에 2兩, 過去 船米 每石 2錢 5分<sup>26)</sup>

22) 柳承烈(1996), pp.39 - 53.

23) 위와 같음.

24) 독립신문, 1899년 7월 26일.

25) 위와 같음.

26) 皇城新聞, 1901년 4월 23일.

영흥사가 穀物, 牛皮, 紬屬과 함께 각종 수산물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업세를 댓가로 객주를 보호하고 있음도 보여준다. 그 밖에 일부 객주들은 어획물을 취급하는 상회사를 만들거나 객주조합을 결성하여 일본인 어획물 판매업자들의 침탈에 맞서기도 하였다. 1903년 2월과 5월에 각각 설립된 魚商會社와<sup>27)</sup> 群山客主組合이 그것이다.<sup>28)</sup>

이어서 객주들은 궁내부의 지원을 받아 1903년 10월에 昌盛社를 설립하였다.<sup>29)</sup> 「昌盛社章程」은 永興社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상 독점과 배타적인 권리를 규정하였던 것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은 실효를 거두었다. 90여 명의 군산 객주 중 60여 명이 창성사 설립에 참여할 정도였다. 당시 皇城新聞은 이 시기의 商況을 1905년 이후와 대비하여 평가하길 내장원의 인허를 받아 상회사가 설치되고 내장원에 부속됨으로써 상업의 폐단이 없어지고 상업이 점차 발달하였다고 하였다.<sup>30)</sup> 반면에 일본상인들은 객주와 거류제도로 말미암아 경제 침투가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였다.<sup>31)</sup>

### Ⅲ. 日本人 魚市場의 침탈과 客主의 저항

군산 객주의 상회사 설립 운동과 정부의 지원 노력은 일본의 수산업 침탈을 막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을 견제할 만한 구미 세력도 열세이었던 터라 객주의 상회사 설립 운동도 초기 단계여서 일제의 수산업 침탈을 적극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따랐다.

우선 군산 개항 이후 1896년 창립 이래 목포까지 지회를 설치한 부산의 日本人 漁業協會가 원산, 마산과 함께 군산에도 지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sup>32)</sup>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군산 근해에도 일본 어선이 200척이 출몰하여 어로 작업을 하였다.<sup>33)</sup> 1902년에는 군산의 일본 어선수가 263척, 어민은 1,100여 명이었다. 많은 해는 300~400척에 이르기도 하였다.<sup>34)</sup> 심지어 1907년 5월에는 竹島 어장에서 일본인 어선 700여 척이 불법 어업행위를 자행하다가 군산항 등지까지 들어와 부녀자를 희롱하기까지 하였다.<sup>35)</sup>

일본인 어업자들은 이처럼 생산 부문을 침탈한 데 이어 유통 부문을 장악하려 하였

27) 이 회사는 어획물을 취급하는 객주회사로 보인다. 그러나 이 회사는 작폐가 심해 상민들이 이산하였다 (皇城新聞, 1903년 4월 11일).

28) 群山府廳(1917), p.24.

29) 昌盛社章程(奎 18974), 1903.

30) 皇城新聞, 1906년 3월 24일.

31) 關稅局, 貿易月報 제12호(1909년 6월) 부록, '商業上ヨリ觀タル韓國ニ漁ケル外國人就中日本人ト韓人トノ關係(8)' 群山港의 分.

32) 皇城新聞, 1899년 5월 27일; 三輪規, 松網琢磨(1907), p.215.

33) 皇城新聞, 1899년 11월 24일.

34) 皇城新聞, 1902년 7월 26일.

35)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30일.

다. 그것은 魚市場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표 2>는 1910년 이전 朝鮮各地에 설립된 어시장 현황이다.

<표 2>에서 일본인들이 이들 어시장의 대부분을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어시장 중 부산, 인천 어시장이 어물 취급고가 가장 높고 군산, 마산, 진남포 어시장이 그 뒤를 따랐다.<sup>36)</sup> 군산 어시장의 경우, 大澤이 1906년에 세운 群山水産株式會社의 후신인 海産物委託販賣會社가 경영하였다.<sup>37)</sup> 이 회사는 주로 일본인 어민이 위도, 격음근도, 죽도 등 어장에서 잡은 어물을 취급하였으며 판로는 인천, 군산, 강경, 응포, 부안, 임산, 논산, 황산 등이었다.

그러나 1년 매상고를 보면 4만엔으로 부산 어시장의 1개월 매상고에도 미치지 못하였다.<sup>38)</sup> 1911년 전라북도의 어획고가 1911년 당시 84,000엔이며<sup>39)</sup> 일본인이 주로 취급하였던 이출품과 수출품은 각각 3,083엔, 248엔에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일본인 판매상이 취급하는 어획물판매금액은 매우 적었다고 하겠다.<sup>40)</sup> 반면에 일본 어선들은 어획물의 대부분을 군산 어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소금으로 절여 모선을 통해 일본

<표 2> 1910년 이전 朝鮮各地의 魚市場

소재지	이름	경영자	자본금	불입금	설립연월일
慶南 蔚山	蔚崎魚市場	蔚崎水産株式會社	10,000		설립중
慶南 釜山	釜山水産株式會社	釜山水産株式會社	600,000		1903. 1. 1.
慶南 馬山	魚市場	馬山水産會社	20,000	5,000	1906. 4. 8.
慶南 長承浦	長承浦魚市場	長承浦魚市場	10,000		1907. 2.20.
慶南 統營	統營魚市場	統營魚市場組合	5,000		1904. 4. 1.
全南 木浦	木浦魚市場	大分縣人長浦福市	5,000		1900. 9. 6.
全北 群山	群山海山株式會社 魚市場	群山海山株式會社	10,000	2,500	1907. 3.27.
京畿 京城	株式會社 京城水産物市場	株式會社 京城水産物市場	60,000	15,000	1905. 1.11.
京畿 龍山	株式會社 龍山魚市場		17,500		1907.11. 9.
京畿 京城	日ノ丸市場	香椎源太郎	미상		1908. 5.16.
京畿 仁川	仁川水産株式會社 魚市場	仁川水産株式會社	300,000	75,000	1907.11.
京畿 仁川	仁川魚商會社 魚市場	仁川魚商會社	2,680		1899.11.15.
平南 鎮南浦	鎮南浦水産株式會社 魚市場	水産株式會社	40,000		1908. 3.12.
平南 平壤	株式會社 平壤魚采市場		30,000		1906.10.20.
平北 新義州	新義州 江岸魚市場	藤原秀吉	2,200		1908. 5.10.
全北 萬頃	共榮社	鄭翰圭 외 7명	800		1908. 8. 1.
平南 三和		李用仁	200		미상
平南 永柔		安鳳年	無		미상

출 전 : 韓國水産誌 1(1910), pp.365 - 366

36) 韓國水産誌 1, p.366.

37) 韓國水産誌 1, p.452.

38) 韓國水産誌 3, p.549.

39)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元年度.

40) 위와 같음.



본국으로 바로 수송하였다. 그것은 군산 어시장이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비하지 못함 데다가 판로를 확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군산 어시장이 다른 지역과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이 구비하지 못하였음도 커다란 요인이었다. 따라서 다량의 어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본인 판매상은 싼 가격으로 조선인 객주에게 방매를 위탁해야 했다.<sup>41)</sup> 특히 일본 어선의 어획물은 조기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본인들의 기호 어물인 도미, 삼치 등이 대부분이어서 조선인들의 수요를 늘릴 수가 없었다.<sup>42)</sup>

일본인 어업자들도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여 어획물을 군산 어시장을 거치지 않고 강경 지역에 직접 공급해야 했다.<sup>43)</sup> 이 때 조선인 객주들에게 식사를 뺀 나머지로 거래 가격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금강 연안 각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공급되는 어물은 대개 조선인 객주 또는 출매선들이 취급하였다. 물론 조선인 어업자들의 어획물은 군산 어시장을 거치지 않고 이들 객주를 통해 타 지역으로 배급되었다. 당시 공주, 강경, 군산 등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세 곳 사이의 도로가 온전치 못하므로 상업의 세력이 인천 범위 내에 속박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재류일본인의 발전에 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정도였다.<sup>44)</sup> 반면에 군산 어시장을 경유하는 것은 강경과 같이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 지역과 교통이 빈번한 장소에 국한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인 판매상들은 타개책에 골몰하며 통감부에 그들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sup>45)</sup> 여기에는 대규모 水産會社의 창립을 비롯하여 水産組合의 支部 설치, 冷蔵船의 공급, 交通網의 확충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조선의 어물 시장 장악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기반시설의 구축에 목적을 두었다.

한편, 군산 객주들은 일본인들의 침투에 맞서 社會經濟運動을 전개하였다. 우선 객주들이 客主會社 설립을 청원하였다.<sup>46)</sup> 이제 황실의 지원이 끊어졌지만 스스로 대책을 세워 상회사를 재조직하려 하였다. 또한 이들 객주는 國債報償運動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907년 객주 14인이 국채보상의무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즉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지역 단위의 운동 방식과 달리 군산항 객주상회사가 중심이 되어 國債報償義務社를 조직하여 義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sup>47)</sup> 즉 전라북도의 경우, 대부분이 지방의 전현직 관리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마을 단위로 군민들이 적극 참여

41) 韓國水産誌 3, pp.548~550.

42) 군산 어시장 설립 직전의 1906년 1년 매상고를 보면 도미와 삼치의 매상고가 전체 매상고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朝鮮水産誌 1, p.454).

43) 三輪規, 松網琢磨(1907), p.218

44) 위와 같음.

45) 이 중 교통망의 확충도 긴급한 사안으로 제기되었다. 이 지역 일본인들은 통감부에 이 곳 도로를 속히 개수하라고 청원하였고 곧 전주 군산간 도로가 착공되었다(皇城新聞, 1909년 9월 18일 ; 1910년 1월 25일 ; 1월 26일 ; 4월 6일).

46) 皇城新聞, 1906년 3월 24일.

47) 皇城新聞, 1907년 3월 29일 ;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4일.

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군산은 객주 상회사가 주도하여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김기주, 1997). 그리고 여기에 참가한 객주들 중에는 창성사 설립과 밀접한 객주들이 많이 보였다. 이는 객주들이 국채보상운동을 통해 국권을 회복함으로써 기존의 상권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나아가 국권의 수호만이 일제의 경제 침탈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또 이들 객주 중에 일부는 魚商會社를 만드는 한편 학도가 30여 명에 이르는 노동야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sup>48)</sup>

한편, 1909년 10월 群山의 실업가와 叡州의 실업가들이 자금을 모아 湖商館商會를 창립하였다.<sup>49)</sup> 이들 대부분은 객주를 비롯한 실업가들로 상회사를 설립하여 客主와 商旅를 연락함으로써 상업 확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외국물품을 직접 방매하는 등 상행위에 적극 나섰다. 그 회원수는 무려 300여 명에 이르렀다. 군산의 객주들도 여기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객주가 80여 호였으나 이들을 묶을 회의소가 없어 합동력이 결여된 가운데 호상관상회 설립을 계기로 상행위의 위축을 타개하려 했던 것이다.

#### IV. 魚物市場의 재편과 客主의 쇠퇴

일제는 강점을 전후로 하여 「朝鮮會社令」, 「市場規則」 등을 통해 객주업을 통제함으로써 조선인 객주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조선인 객주와 일본인 상인들을 동일 기구에 편제시킴으로써 조선인 객주의 상행위를 제한하려고 하였다(전우용, 1997 : 2005). 이것은 수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먼저 일제가 1910년 '허가주의'를 골자로 하는 「會社令」을 제정함으로써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객주회사 설립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였다.<sup>50)</sup> 그리하여 1910년 이전에 설립된 群山港 紳商會社와 群山港合資客主會, 湖上館商會 등이 근대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었다. 1916년 현재 수산업 관련 회사 중 일인 회사는 4개인 데 반해 조선인 회사는 단 1개도 존재하지 않았다.<sup>51)</sup>

일제는 이처럼 「회사령」을 제정하여 조선 객주의 자본 결집을 통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시장을 비롯한 유통거래지를 대대적으로 통제하고 간섭하고자 하였다. 「客主取締規則」과 「市場規則」의 제정은 대표적인 조치였다.

우선 1913년 8월에 제정된 「객주취체규칙」은 객주의 영업활동을 위축시켰다.<sup>52)</sup> 인

48) 大韓每日申報, 1910년 5월 14일.

49) 大韓每日申報, 1909년 10월 26일 ; 10월 27일.

50) 류승렬(1996), pp.215 - 223 ; 전우용(1997), pp.277 - 290.

5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大正5年度, pp.180 - 185.

52) 이에 관해서는 전우용, 앞 논문(1997), pp.140 - 141 참조.

천의 경우, 객주들이 소관 경찰서에 손님들의 출발, 숙박에 대한 보고서를 매건마다 한 시간 안에 관할 파출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sup>53)</sup> 다음 1914년 9월 12일에 발표된 「市場規則」은 객주의 활동을 제한시켰다. 객주 존재 자체를 시장에서 구축하고자 하였다. '시장규칙' 제정을 주도한 秋山 참사관은 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54)</sup>

조선의 시장은 개인의 경영으로 이루어진 자 많아 (중략) 객주가 중개자가 되어 (중략) 종래로 惡慣習이 있되 (중략) 시장의 경영을 개인적 경영으로 함은 좋지 않은 일이라. 府 또는 面 등의 공공단체의 경영으로 넘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사업으로 경영하는 방침에 다름 아니다.

「시장규칙」의 제정이 공공성과 객주 거래의 문제점을 내세워 객주를 몰아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수산물 객주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항이었다. 그는 계속하여 수산물 시장과 관련하여 객주를 언급하고 있다.<sup>55)</sup>

또 현재 개인으로 경영하는 자는 특수한 시장으로 하되 그 영업에 기한이 있는 자는 기한 내로 무기한의 자는 본령 발표일로부터 이후 10개년을 한하여 영업을 인정케 하고 또 제26조에 위탁을 받고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해 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은 府 또는 면 등의 공공단체에서 곧 경영키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당분간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할 자 이외의 자에 대해 이후 5개년 동안의 기한을 附하고 설치를 허가하기로 규정한다.

수산물 시장의 경우에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여 객주를 5개년 안에 구축하겠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객주는 시장에서 밀려나는 반면 일본 상인은 어시장을 경영하면서 손쉽게 중간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한편, 일제는 1910년 합병 이전부터 일본인 어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그리하여 1909년 6월 농상공부는 書記官會議에서 어획물 판매의 편리와 확실을 도모하기 위해 이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이후 1910년 5월 4일 일본인 漁政課長의 보고에 따라 「魚市場取締規則」 제정 논의에 들어갔다.<sup>56)</sup> 이는 어시장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어시장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인들의 어시장 설립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조선인의 어시장 설립 노력에도 불구하고<sup>57)</sup> 1910년 조선인이 경영하는 어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sup>58)</sup>

이러한 조치들은 1910년 이전부터 일본 판매상들이 바랬던 조치들이었다. 즉 일본

53) 每日申報, 1913년 8월 13일, '客主業者의 取締'.

54) 每日申報, 1914년 9월 16일, '市場規則의 趣旨 - - 秋山 參事官 談.'

55) 위와 같음.

56) 皇城新聞, 1910년 5월 10일; 大韓每日申報, 1910년 5월 4일.

57) 조선인들이 청진, 마산, 창원, 고성 등지에서 어시장을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皇城新聞, 1909년 2월 12일; 1910년 6월 11일, 1910년 6월 26일; 大韓每日申報, 6월 24일; 1910년 7월 5일)

58) 류승렬(1996), pp.163 - 164.

판매상들은 일제의 정치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조선인 객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제가 「시장규칙」을 제정한 목적은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市場稅 징수의 증대에 두었다.<sup>59)</sup> 어시장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시장세 징수의 경우, 조선인 위주로 소액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장은 집중적으로 징수하였으나 일본 상인이 대규모로 거래하던 어시장은 거의 제외되었다. 이는 어획물을 취급하는 조선인 객주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시장 밖에서 영업하던 조선인 객주들이 이에 항의하여 분쟁이 이어졌다. 군산과 가까운 강경포의 경우, 1915년 일본 상인 6명이 어시장을 설립한 후 강제로 조선인 객주를 배제하고 해산물 거래를 독점하려 하였다. 조선인 객주들은 이 같은 사태에 당면하여 적극 대응하였으나 결국 밀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다.<sup>60)</sup> 이는 조선인 객주의 쇠퇴를 의미하였다. 하물며 군산의 경우는 객주의 처지가 훨씬 열악하여 이런 항의조차 신문기사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인 객주에게 공급할 어획물 자체가 한정되었다. 그것은 생산부문에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밀리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1911년 「漁業令」은 일본인 어업이 조선인 어업을 압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sup>61)</sup> 이는 일본인이 이전에 침탈한 어업권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한편 어업권을 통제할 수 있는 허가권, 면허권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1916년 당시 군산의 경우, 일본인은 면허업자가 2, 허가어업 15, 신고어업 15명인 데 반해 조선인은 전무였다.<sup>62)</sup>

그 결과 생산량에서 조선인과 일본인간에 큰 차이를 드러내었으며 결국은 판매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라북도의 경우, 1913년 군산 西濱魚市場과 佐賀縣 韓海 出漁組合共同販賣所는 각각 77,327엔, 36,909엔으로 총 판매액이 110,000엔을 상회하였다.<sup>63)</sup> 이는 1908년 37,867엔에 비해 2배 이상을 상회하는 금액이다.<sup>64)</sup> 이후 군산 어시장의 매상고는 자연적 계절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3>은

<표 3> 1910년대 전라북도 어시장의 매상고

단위 : 엔

연도	1914	1916	1919	1920	1923	1925
매상고	101,346	154,173	181,125	292,103	274,000	258,121

출 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各年度 ; 朝鮮總督府(1924), 市街地の商圈, p.424.

비 고 : 1910년대에는 전라북도 어시장이 군산부에만 존재함  
1918년도 통계가 없어 1919년도 통계를 제시

59) 이에 관해서는 류승렬(1996), p.228 참조.

60) 每日申報, 1916년 2월 23일 ; 6월 14일.

61) 漁業令에 관해서는 한규설(2001), pp.108 - 113 참조.

62) 群山府(1917), 群山府勢要覽, p.27.

63) 朝鮮總督府(1913), 全羅北道 統計年報, p.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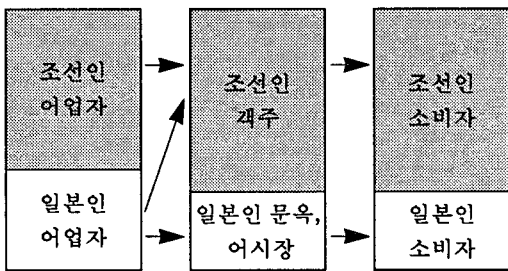
64) 水産便覽(1919), pp.190 - 191.

1913년 이후 1925년 군산 어시장의 매상고 현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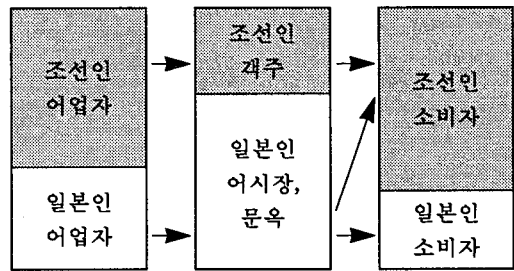
1910년대에는 매상고가 200,000엔 이하였으나 1920년에는 300,000엔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이후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23년과 1925년에는 군산 어시장의 매상고가 각각 274,000여 엔과 258,000여 엔에 이르렀다.<sup>65)</sup> 이에 반해 어획고는 1916년과 1923년이 각각 487,000여 엔과 1,287,000여 엔이었다.<sup>66)</sup> 따라서 1916년과 1923년을 비교하면 전라북도의 어획증가율이 264%인 데 반해 군산 어시장의 매상고 증가율은 271%인 셈이다. 이런 수치는 당시 조업 기술의 발달과 투자 규모의 증가에 비해 군산 어시장 판매망 확충이 일반적으로 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sup>67)</sup>, 일본인이 올리는 매상고가 군산 전체 어물 유통 총량에서 점차 우위를 차지해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인 소비자의 증가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당시 이곳 어시장에서 수출되거나 이출되는 어획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시장이 조선인 소비자들에게도 그들의 기호에 맞는 어종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up>68)</sup> 그리고 마침내 군산 어시장의 거래액이 전국 33개 어시장(주식회사) 중에서 7번째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본인 어시장의 성장은 군산 어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조선인 객주의 감소로 나타났다. 1900년 경에 군산의 객주가 90여 명이었으나 1910년대 중반에는 객주가 겨우 51명에 지나지 않았다.<sup>69)</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군산 어물 시장의 이러한 변동이 어획물의 유통 경로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191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인 어시장이 군산 어획물 유통망을 장악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 1910년대 전반 어획물 유통 현황



<그림 2> 1910년대 후반 어획물 유통 현황

65) 朝鮮總督府(1924), 市街地の商圏, p.424.

66)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년과 1924년판.

67) 어획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판매망의 확충 비율이 낮아 조선총독부에서는 어시장 또는 객주의 확충을 피할 정도였다(每日申報, 1912년 11월 21일).

68)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어물시장이라 할 경성부 어시장의 선어 총매상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성부 어시장의 총매상고가 1919년에는 740,738엔이었으나 1921년에는 1,323,889엔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東亞日報, 1926년 9월 9일).

69) 群山府(1917), 群山府勢要覽, p.24.

1910년대 전반만 하더라도 일본인 어업자가 잡은 어물의 경우, 조선인 객주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었지만, 191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조선인 어업자가 잡은 어물조차도 어시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또한 일본인 어시장이 일본인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소비자에게도 어획물을 본격적으로 공급하였다.

군산 어시장의 유통권도 확대되었다. 우선 買集 範圍가 확대되었다. 군산 근해에서 벗어나 苗浦, 法聖浦, 落月島, 蝸島 부근의 어획물도 매집되었다.<sup>70)</sup> 물론 이들 어획물의 대부분은 군산 어시장을 거쳤다.<sup>71)</sup> 또한 배급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것은 1912년 호남선과 군산선이 개통되면서 종전의 해상운송방식에서 육상운송방식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17년 당시 이 지역 어획물 금액이 대략 460,409엔에 달았는데 이 중 鮮魚의 대부분이 군산에 올라왔다. 다시 일부는 같은 지방의 수요에 공급되었고 대부분은 얼음으로 저장되어 관내 각지를 비롯하여 기차편으로 바다에 접하지 않은 조선 각 도시로 반출되었다. 여기에는 경성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평양, 신의주, 안동, 목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일부의 선어와 염장품은 어선에 의해 금강을 따라 올라가거나 기차를 통해 강경으로 운반되었다. 이 역시 1914년에 설립된 강경 어시장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강경 어시장의 경우, 1915년에 6,125엔에 불과하던 집산액이 1917년에는 41,098엔으로 증가할 정도였다.<sup>72)</sup> 나머지는 건제, 염장 등으로 일본과 조선 각지에 공급되었고 그 밖의 수산물은 중국에 수출되었다.<sup>73)</sup> 이 중 전주, 이리, 대전, 대구 등지에 공급된 어획물 금액이 1929년에는 약 27만 엔에 이르렀다.<sup>74)</sup> 이제 군산 어시장은 강경장을 누르고 중요 집산지로 부각되었을뿐더러 강경에서도 일본인 어시장이 성장하였던 것이다. 1930년대에는 어시장을 경영하던 全北水産會社가 전북의 해산물을 독점하고자 하여 群山府와 협의하였으며<sup>75)</sup> 심지어는 群山漁業組合이 위탁 판매권을 완전히 장악한 나머지 객주들이 長項으로 밀려나야 했다.<sup>76)</sup>

이러한 추세는 다른 지역의 어시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1920·30년대에 들어가면 조선 각지의 어물 시장은 거의 일본인 어시장과 어업조합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며 거래 방법도 객주를 통하지 않고 荷主의 손에서 어시장에 위탁되고 중매인에 의해 경매되기에 이르렀다.<sup>77)</sup>

70) 高橋嘉市 編(1925), 黃渤海の漁業, pp.25 - 26.

71) 全羅北道廳(1914), 全羅北道案內, '群山府'.

72) 朝鮮總督府(1919), 水産便覽, p.191.

73) 朝鮮研究會(1917), 新朝鮮成業年鑑 - 全羅北道, p.6.

74) 朝鮮總督府(1929), 朝鮮の市場經濟, p.367.

75) 東亞日報, 1934년 4월 1일.

76) 東亞日報, 1934년 5월 15일 ; 5월 31일.

77) 四方博(1976), "市場を通じて見たる朝鮮の經濟", 朝鮮社會經濟史研究 上, 國書刊行會, p.247.

## V. 結 語

조선 후기에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교환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어획물 유통이 활발하였다. 따라서 어획물의 생산과 유통에 깊이 관여한 객주들도 성장하였다. 물론 이들 객주는 생산자나 소상인에게 세금을 받거나 口文을 받아내어 이들의 성장을 막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에 필요한 대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거나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여 수산업이 근대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개항 이후 일본 어민들과 수산업자들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조선의 어업을 장악하여 갔다. 특히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국권 탈취는 어업권 장악을 마무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에 반해 어획물 유통 부문은 조선인 객주들의 저항과 유통구조의 특질로 말미암아 생산부문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

1899년 개항된 群山의 경우, 서해 어업의 근거지로서 조선 3대 장시의 하나인 江景浦口와 근접하여 있어 이런 특징을 잘 보여준다. 즉 군산은 1899년 개항 이후 일본 어업자들과 함께 어획물 판매업자들이 대거 이주하여 魚市場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부문과 달리 군산의 어물 시장을 쉽게 장악하지 못하였다. 조선 재래의 객주들이 어획물 유통망을 갖추고 사회경제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적, 계절적 변동에 따른 가격의 불안정, 보관, 운송의 특수성 및 민족간의 嗜好 魚種 차이가 일본인 판매업자의 침투를 저해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가 1910년 8월을 전후하여 「市場規則」, 「客主取締規則」, 「會社令」 등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인 객주의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어시장을 비롯한 일본인의 각종 수산기구를 지원함으로써 어물시장은 191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이는 군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조선인 객주들의 매상고는 줄어드는 한편 일본인 위주의 어시장 매상고는 상승 곡선을 그렸으며 1920년대에는 어시장이 조선 재래 객주의 유통망을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鐵道의 개통은 일본인 어시장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더 나아가 조선의 대표적인 객주라 할 江景客主들도 일본인 어시장의 침탈로 인하여 쇠퇴의 길을 걷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조선인 객주의 몰락과 일본인 판매업자의 승리를 의미했다. 아울러 조선인 객주는 근대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박탈당하여 식민지 수산물 유통체계에 종속되는 한편 조선 어민의 생산 활동에 기생하여 착취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식민지 경제체제가 한국 수산물 유통부문에 남긴 커다란 자국이였다.

參考文獻

- 高東煥, “18세기 서울에서의 魚物流通構造”, 韓國史論, 제28집, pp.24 - 37, 1994.
- 김기주, “전북지역의 國債報償運動”, 全北史學, 제19·20 합집, pp.68 - 81, 1997.
- 김수관·두정완·윤영선, “日帝强占期の 水産物 流通實態에 關한 考察 - 西海岸 地域을 中心으로 -”, 수산경영론집 제35권 제1호, pp.141 - 150, 2004.
- 金秀姬, “朝鮮植民地 漁業과 日本人 漁業移民”, 東京經濟大學 博士學位論文, 1997.
- 김종수, “군산항 개항의 역사적 의의”,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논문집(군산시 편), pp.124 - 139, 1999.
- 柳承烈, “韓末·日帝初期 商業變動과 客主”,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朴九秉, 韓國水産業史, 太和出版社, 1966.
- 朴性俊, “大韓帝國期 海稅 징수와 魚鹽의 유통”,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이영학,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 제18집, pp.169 - 186, 1995.
- 이영학, “조선후기 어업에 대한 연구”, 역사와 현실, 제35집, 2000.
- 이영학, “朝鮮後期 魚物의 流通”, 韓國文化, 제27집, 서울대학교, 韓國文化研究所, 2001.
- 전우용, “1910년대 객주통제와 ‘조선회사령’”, 역사문제연구, 제2집, pp.140 - 141, 1997.
- 全遇容, “19世紀末~20世紀初 韓人 會社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전우용, “근대 이행기 서울의 객주와 객주업”, 서울학연구, 제24집, 서울학연구소, 2005.
- 하원호,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1997.
- 한규설, 漁業經濟史를 通해 본 韓國漁業制度 變遷의 100年, 석학사, 2001
- 韓祐勛, “開港後 日本漁民의 浸透(1860~1894)”, 東洋學, 제1집,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71.
- 群山府廳, 群山府勢要覽, 1917.
- 三輪規, 松網琢磨, 富之群山, 1907.
- 四方博, “市場を通じて見たる朝鮮の經濟”, 朝鮮社會經濟史研究 上, 國書刊行會, 1976.
- 高橋嘉市 編, 黃渤海の漁業, 1925.
- 日本領事館, 通商彙纂, 1900.
- 朝鮮研究會, 新朝鮮成業年鑑 - - 全羅北道, 1917.
- 朝鮮總督府, 韓國水産誌, 1910.
- 朝鮮總督府, 水産主任打合會要錄, pp.19 - 20, 1912.
- 朝鮮總督府, 市街地の商圈, 1924.
- 朝鮮總督府, 全羅北道統計年報, 1913.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4년과 1924년판
- 朝鮮水産會, 朝鮮水産大要, 1926.
- 獨立新聞,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每日申報, 東亞日報, 朝鮮總督府官報



## **A Study on the Change of Fishes Market and Inland Market Brokers on Gunsan, 1899-1919**

Kim, Tae-Woong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 of fish market(魚物市場) and inland brokers(客主, kaegju) on Gunsan(群山), 1899 – 1919.

The increasement of productive capacity in the agri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xchange economy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activated the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As a result, the inland brok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ishes grew largely. They made the basement of fishery modernization by providing the funds for the fisheries and making the national distribution network.

But Japanese fishermen began to hold the domestic market as the Japan government supported legislatively and economically after the opening ports of Korea. On the contrary, the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had the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e production of some. The case of Gunsan which opened in 1899 showed these characteristics as Gunsan is a short distance from Kangkyung(江景), one of three biggest markets and was a base of fishery. That is to say, though the fishery merchants from Japan set up 'a fish market' (魚市場), they didn't hold the sales network on Gunsan. Because the inland brokers on Gunsan had a sales network and began the socio – economic movemen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instability of price, the difficulties of charge and the racial taste difference in fish made the fish sales from Japan confronted with the difficulties.

After Japanese Imperialism enforced the Company Law, the Market Regulation, the Chamber of Commerce Law before or after 1910, Korean inland brokers were disprited and Japanese 'fish market' began to grow largely. These phenomena appered on Gunsan, too. Especially, the opening of a railway

金泰雄

was the main factor which strengthened Japanese 'fish market'. After 1915, Japanese 'fish market' on Gunsan defeated the distribution network of inland brokers.

Key words : Gunsan, Inland Brokers, Japanese 'Fish Market',  
Distribution of Fishes, Company